[THINK ENGLISH] 서울모빌리티쇼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장 … 중국 이어 세계 2번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0/0000036924?sid=101

Tesla's Optimus humanoid robot at the Seoul Mobility Show 2023 [SARAH CHEA]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등장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채사라 기자] Tesla brings bots, Xs and Ss to the Seoul Mobility Show 서울모빌리티쇼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장 … 중국 이어 세계 2번째 Korea JoongAng Daily 4면 기사 Friday, March 31, 2023 A 173 centimeter, 73 kilogram (160 pound) silver humanoid robot welcomes visitors at the entrance of Tesla's booth at the Seoul Mobility Show on Thursday. bot: 보트.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 humanoid: 인간과 비슷한 기계 robot: 로봇, 자동기계 장치 173cm, 73kg, 사람과 비슷한 모습의 은빛 로봇이 목요일(3월 30일) 서울모빌리티쇼에 설치된 테슬라 부스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맞았다. Donning a Tesla logo belt, Optimus has a 2.3-kilowatt-hour battery pack at the back, which Elon Musk says is “perfect for about a full day’s worth of work.” don: (옷 등을) 입다, 쓰다, 신다 kilowatt-hour: 킬로와트시. 1시간에 제공되는 킬로와트의 양을 나타내는 전력단위. kWh 테슬라 로고가 그려진 벨트를 맨 옵티머스는 1시간에 2.3킬로와트의 전력이 제공되는 배터리 팩을 등에 장착한다. 일론 머스크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완벽한”이라고 했던 그 배터리 팩이다. Tesla is displaying Tesla Bot, also called Optimus, at the country's largest auto show this year, which opens its doors on March 31 at Kintex, Gyeonggi. display: 전시하다 테슬라는 국내 최대 자동차쇼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옵티머스라고 불리는 테슬라 로봇을 전시한다. 서울모빌리티쇼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3월 31일 개막한다. Korea is the second foreign country to see the robot after China. It's the first time the world's largest EV maker is participating in the Seoul Mobility Show. 테슬라가 해외에서 이 로봇을 전시하는건 한국이 두번째이다. 첫 번째는 중국이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회사인 테슬라가 서울모빌리티쇼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usk believes the robot will "change the world," with a goal to mass-produce it in three to five years at a $20,000 price tag. mass-produce: 대량생산하다 price tag: 가격표 머스크는 이 로봇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3~5년 내에 양산해서 2만 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esla also showcased its latest Model S and Model X vehicles at the show. The cars were released in the local market Thursday. Two versions are available. showcase: 공개 행사, 진열장 vehicle: 탈 것, 운송수단 release: 풀어주다, 공개하다 테슬라는 또 신형 모델 S와 모델 X를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했다. 이 차들은 목요일 국내에 출시됐다. 사양에 따라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다. The Model S will be the fastest electric vehicle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With three electric models, it boasts 1,020 horsepower and can reach a maximum speed of 322 kilometers (200 miles) an hour. currently: 현재, 지금 boast: 뽐내다, 자랑하다 horsepower: 마력 현재로선 모델 S가 한국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다. 3개의 전기 모터를 통해 1020마력을 자랑하며 최대 시속 322km에 달한다. It can travel up to 483 kilometers per charge. per charge: 한번 충전에 1회 충전에 483km를 갈 수 있다. The vehicle only takes 2.1 seconds to reach 100 kilometers per hour, compared to the Taycan GTS from Porsche, which needs 3.7 seconds. compared to: ~와 비교하여 포르쉐의 타이칸GTS가 시속 100km에 도달하기까지 3.7초 걸리는 것에 비해 테슬라 모델S는 2.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The Model X can go up to 478 kilometers. Its maximum speed is 240 kilometers per hour, and generates a maximum of 1,020 horsepower. maximum speed: 최고 속도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모델 X는 최대 478km를 갈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40km이며, 최대 1020마력을 낸다. When the second and third seats are folded down, the Model X can carry up to 2,614 liters of cargo. fold down: 접다 cargo: 화물 모델 X는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2614리터의 짐을 실을 수 있다. The sticker price of Model S starts from 125 million won ($96,000), while it is 139.5 million won for Model X. sticker price: 표시 가격 모델 S의 판매가는 1억2500만원(약 9만6233달러)부터 시작하고, 모델X는 1억3950만원부터 시작한다. People can order online, and delivery will start in the third quarter.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고, 인도 시기는 오는 3분기부터다. The mobility show runs through April 9. 이 쇼는 4월 9일까지 열린다.   
  
  
  
  
WRITTEN BY SARAH CHEA AND TRANSLATED BY PARK HYE-MIN [chea.sarah@joongang.co.kr, park.hyemin@joongang.co.kr]  
  
  
  
  
기자 프로필  
  
  
  
  
  
  
  
  
  
  
  
  
  
  
  
  
  
  
  
  
SARAH CHEA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제산업부 채사라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바이오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TEST DRIVE] Chevy Trailblazer: On the money for fuel, at its best off the road  
  
  
Samsung SDI to source battery separators from WCP  
  
  
  
  
  
  
  
  
  
  
  
  
  
  
  
  
  
  
  
  
  
  
  
PARK HYE-MIN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코리아중앙데일리 박혜민 뉴스룸 국장입니다.  
  
  
  
  
[THINK ENGLISH] “BTS 슈가 보러왔어요” … 아미들 코엑스에 집결시킨 갤럭시Z 출시 행사  
  
  
[THINK ENGLISH] 그린피스, 제지 안받고 영국 총리 저택 지붕 점거  
  
  
  
  
  
  
  
코리아중앙데일리의 구독 많은 기자를 구독해보세요!  
  
닫기  
  
  
  
  
  
  
  
  
Copyright ⓒ 코리아중앙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오늘의 주요뉴스, 영어로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읽은 코리아중앙데일리를 뉴욕타임스와 함께!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Jisoo of Blackpink is first-ever million-selling female solo K-pop artist  
Lee Ki-young, 31, is suspect in murder of taxi driver in Gyeonggi  
[EXCLUSIVE] Samsung Display to supply OLEDs for Apple tablets and laptops  
Man charged with murder of taxi driver, ex-girlfriend makes first public appearance  
BTS Jimin's 'FACE' lands at No. 2 on Billboard 200 albums chart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연재  
THINK ENGLISH  
구독 명  
  
  
  
구독  
  
  
구독중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연재는 언론사 편집판과오피니언홈의 구독연재 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더보기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용의자 3명 신상 공개  
  
  
  
  
서울모빌리티쇼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장 … 중국 이어 세계 2번째  
  
  
  
  
공개된 북한 인권보고서, 참혹한 실상  
  
  
  
  
  
  
  
  
코리아중앙데일리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글로벌 비즈 브리핑] 블록파이 파산신청·테슬라 모델3 설계 개선 外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12276?sid=101

[글로벌 비즈 브리핑] 한눈에 보는 해외 경제 이슈▲블록파이 파산신청...FTX 붕괴 여파 어디까지▲테슬라, 모델3 프로젝트 '하이랜드' 준비...설계 개선▲골드만 "中 제로코로나, 내년 2분기 이전 끝날 수도"▲미-러 핵군축협정 논의, 하루 전 연기▲월가 '빅테크 편애' 멈춰...과도한 비용 문제 제기 확산▲애플, 中 공장 시위로 아이폰 600만 대 생산 차질 전망블록파이 파산신청...FTX 붕괴 여파 어디까지코인판 리먼사태'를 촉발한 FTX 붕괴 여파가 가상자산 대부업체 블록파이까지 번졌습니다.현지시간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블록파이는 이날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고객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블록파이는 FTX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앞서 지난 여름 쓰리애로스캐피털(TAC)에 막대한 돈이 물려 파산 위기에 몰렸을 당시 FTX로부터 도움을 받아 기사회생했지만, 이번엔 파산의 방아쇠가 됐습니다.블록파이는 이날 성명을 통해 FTX 붕괴가 파산보호 신청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때 예치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기기도 했던 블록파이는 이달 초 FTX를 제외하면 파산한 가상자산 업체 중 가장 덩치가 큽니다.파산보호신청서에 따르면 7억 2천9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앙카라트러스트가 최대 채권자에 이름을 올렸고, FTX의 미국 자회사인 FTX US가 2억 7천500만 달러의 채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2017년 설립된 블록파이는 지난해 말 기준 140~200억 달러(약 18조~26조 7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받고 75억 달러(약 10조 원)를 고객에게 대출했습니다.FTX 붕괴 충격파가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업계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회복기금을 조성하는 등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테슬라, 모델3 프로젝트 '하이랜드' 준비...설계 개선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모델3 설계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하이랜드'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모델3 내부 구성요소의 복잡성을 줄이고, 디스플레이 등 기능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특히 최근 들어 한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가져왔던 중국 시장에서 비야디(BYD)를 비롯한 토종업체들이 급부상하며 경쟁이 심화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3 현지 판매량은 올들어 전년 대비 9%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비야디의 두가지 전기차 모델은 모델3보다 더 많이 판매됐습니다.이번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과 상하이에 있는 공장에서 진행되며, 상하이 공장은 오는 2023년 3분기 적용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모델3 재설계는 지난해 출시된 프리미엄 EV세단인 모델S 개편을 기반으로 합니다.로이터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설계 및 생산에 대한 단순화 방식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테슬라는 모델S 재설계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스티어링휠 대신 비행기 타입의 요크를 추가하고 센터페시아는 버튼과 통풍구를 없앤 미니멀 디자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골드만 "中 제로코로나, 내년 2분기 이전 끝날 수도"중국이 이르면 내년 '제로코로나'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현지시간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후이 샨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이 내년 4월 이전에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코로나'를 끝낼 가능성이 30%라고 내다봤습니다.시장이 내년 말까지 해당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보다 이른 시점입니다.골드만삭스는 "현재 중국 지방 정부가 ‘과학·정밀 방역’이란 최근의 조치를 준수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신속하게 통제해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중국 중앙 정부는 곧 코로나19 확진자 수 확대 혹은 봉쇄 강화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근 들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민들의 이동성 제한과 기업활동 억제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까지 촉발시키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코메르츠방크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직면한 도전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해당 정책을 고수하고자 하는 중국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맥쿼리 래리 후 연구원은 중국이 ‘20개 방역 최적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고자 한 것이 혼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지방 당국은 상부의 명확한 지침 없이 기존 ‘제로 코로나’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앙 정부의 발표로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반면 섣부른 판단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항셍은행 댄 왕은 "지나치게 빠르거나 무모한 재개방은 중국의 성장에 더 나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정책이 너무 빨리 완화되면 사망자가 급증할 위험이 있어 지방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조기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으로 내년 2분기(60%)를 꼽은 바 있습니다.미-러 핵군축협정 논의, 하루 전 연기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관련 논의가 시작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러시아 외무부는 이달 2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예정인 뉴스타트 양자협의위원회(BCC) 연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확인했습니다.외무부는 "뉴스타트 BCC가 예정된 일자에 열리지 않는다"며 "일정이 추후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이유와 추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골자입니다.2011년 2월 발효한 10년 기한의 협정은 양국 합의로 2026년 2월까지로 연장됐으나, 추가 연장 협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답보 상태입니다.뉴스타트 BCC는 원래 매년 두 차례 소집되지만, 작년 10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로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열리지 못했습니다.양국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카이로에서 약 13개월 만에 BCC를 열어 뉴스타트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최근까지 러시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추가 고위급 대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대화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월가 '빅테크 편애' 멈춰...과도한 비용 문제 제기 확산승승장구하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편애'가 줄고, 과도한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전했습니다.신문은 그간 많은 기술기업들이 성장 시나리오를 토대로 공격적인 채용에 나서며 직원들의 몸값을 키워왔는데, 최근 들어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그동안 간과했던 과도한 비용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최근 1년간 약 7조 4천억 달러(약 9천900조 원) 증발했고, 이에 펀드매니저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영국 행동주의 펀드 TCI펀드매니지먼트는 이달 중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서신을 보내 “알파벳 직원의 보수가 IT 업계 시총 상위 20개사 중간값의 2.5배에 달한다”며 “이런 격차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TCI는 2017년부터 알파벳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으며 주식 보유액은 약 60억 달러에 달합니다.TCI는 “매출 성장세가 둔화했다면 비용 측면에서 규율이 필요하다”며 감원을 요구했습니다.빅테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인재와 돈을 끌어들여 새로운 사업 확대로 연결했지만, 올들어 금리 상승과 성장 둔화에 직면하자 월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미국 투자업체 얼티미터캐피털의 브래드 거스너 CEO는 “구글과 메타, 트위터와 우버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투자자들은 특히 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BC캐피털마켓에 따르면 미국 IT 기업들의 직원 보상에서 스톡옵션 비율은 20~30%에 달합니다.주식 보상은 현금 유출을 억제해 잉여현금흐름(FCF)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하지만 웰링턴매니지먼트의 대니얼 포젠 증권 애널리스트는 “스톡옵션에 의존하는 것은 주가 하락 국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추가로 주식을 주거나 현금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요받게 된다. 이에 주식 희석과 FCC 악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 하락이 멈추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애플, 中 공장 시위로 아이폰 600만 대 생산 차질 전망애플이 최근 협력사인 폭스콘의 중국 공장 시위 사태로 아이폰 생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28일 한 생산 부문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사태로 올해 아이폰14 프로 생산 손실분이 6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이달초 애플이 생산 목표치를 300만 대 감축한 것보다도 손실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다만 현재 상황은 유동적이며 생산 손실분이 변동될 수 있고, 내년에 만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블룸버그는 폭스콘이 얼마나 빨리 근로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짚었습니다.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기지인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아이폰14 시리즈 전체 생산의 80%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고강도 봉쇄와 코로나19 공포로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집단 이탈한데 이어, 지난 주에는 시위 충돌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특히 중국 곳곳에서 전국적인 봉쇄 반대 시위가 확산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업계는 이번 사태가 애플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지적하며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아이폰14 프로와 프로 맥스를 주문한 고객이 최장 37일을 기다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는 자난 9월 모델 출시 이후 가장 긴 대기시간입니다.  
   
  
  
  
임선우 외신캐스터(sunwooim90@naver.com)  
  
  
  
  
Copyright ⓒ SBS Biz.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英,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사실상 승인  
포르투갈, 우루과이 2대 0 완파…H조 1위 16강 확정  
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주도' 신풍제약 임원 구속  
尹 "北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대응"…中 역할 주문  
한국, 조규성 2골에도 가나에 2-3 패배…16강 빨간불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 추천은 24시간 내 5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닫기  
  
  
  
  
  
  
쏠쏠정보  
0  
  
  
  
  
흥미진진  
0  
  
  
  
  
공감백배  
0  
  
  
  
  
분석탁월  
0  
  
  
  
  
후속강추  
0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SBS Biz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Start-Up]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인터넷 연결된 커피 볶는 기계로 비법 공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3157181?sid=101

누구나 쉽게 커피 생두를 볶을 수 있는 스마트 로스팅 기계 '에스트리니타'를 개발한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의 우종욱 대표(맨 앞)와 직원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스마트 커피 로스팅 기계 만든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버튼만 누르면 쉽게 커피 볶아로스팅 데이터 실시간 저장…커피숍 원가 30% 절감 효과[ 임근호 기자 ] “디지털카메라가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수동 카메라를 따라갈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문가도 초보자도 디지털카메라를 쓰잖아요.”지난 5일 서울 고척동의 허름한 공장 한 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만난 우종욱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대표는 디지털카메라를 예로 들며 “커피 로스팅 기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생두를 볶아 원두를 만드는 로스팅은 5~10년은 경험을 쌓아야 제대로 맛과 향을 낼 수 있지만 자동화된 로스팅 기계를 쓰면 누구나 쉽게 로스팅할 수 있다는 얘기다.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는 지난해 8월 스마트 로스팅 기계 ‘에스트리니타7’을 공개하고 11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우 대표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5월 회사를 세운 지 약 4년 만이다. 900만원대인 수동 로스팅 기계보다 약간 비싼 1020만원이지만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벌써 120여대가 팔렸다. 커피숍 레스토랑 커피애호가 등이 주요 구매자다.○원가 절감 위해 로스팅 필수  
  
  
  
  
우 대표는 커피 전문가가 아니다. 취업 대신 무조건 창업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눈에 띈 게 커피 로스팅이었다. 커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원가 절감과 차별화가 성공의 관건이란 생각에서다.그는 “커피를 가루로 내면 20분 만에 향이 날아가고 원두는 2주, 생두는 2년 동안 품질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스팅으로 생두를 원두로 만들 때 값이 3~6배 뛰는 게 문제였다. 그는 “로스팅만 할 줄 알아도 커피숍 입장에서는 원가를 3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설계 판금 용접에 이르기까지 커피 로스팅 기계를 만들던 전문가들을 수소문해 끌어모았다. 2010년 8월 첫 모델이 나왔다. 판매용은 아니었다. 가스불로 하는 기존 로스팅 기계와 완전히 다른 전기 로스팅 기계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 그는 “열을 균일하게 가할 수 있고 온도를 측정하기도 쉬워 스마트 로스팅 기계를 만들려면 전기가 필수였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전기 로스팅을 믿지 못했다. 2011년 독일 ‘국제 아이디어·발명 신제품 전시회(iENA)’에서 금상을 받는 등 해외에서 호평받았지만 묵묵히 제품 개발에만 매진했다.○“로스팅 분야의 테슬라 될 것”에스트리니타는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처럼 전문가와 초보자가 모두 자기 능력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초보자는 제품 한쪽에 달린 터치 스크린의 ‘스마트 로스팅’ 버튼만 누르면 된다. 어떤 종류의 원두를 로스팅할 것인지 고르고 라이트부터 이탈리안까지 8단계의 농도를 선택하면 생두를 최적의 상태로 볶아 준다.전문가는 ‘매뉴얼 로스팅’을 누르면 된다. 예열 온도, 드럼 내부 온도, 할로겐 조절, 댐퍼 조절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는 “로스팅은 손맛이 아니냐고들 하는데 전문가도 매번 10시간씩 로스팅기 앞에 앉아 불을 조절해야 하는 건 고역”이라며 “에스트리니타는 전문가들이 보다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열을 조절하면서 어떨 때 가장 좋은 맛이 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다. 기록이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 다른 사람과 로스팅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다.처음 5명으로 시작했던 회사는 20명 규모로 커졌다. 제품 설계부터 조립, 소프트웨어 개발, 사후 지원까지 고척동의 사무실과 공장에서 다 이뤄진다. 미국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에도 진출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법인을 세웠다. 1~2년 정도 현지 테스트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우 대표는 “전기자동차 분야의 테슬라처럼 우리는 커피 로스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근호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한솔홈데코, 탄소배출권 임대료 받는다  
"中企 적합업종 지정 앞서 기업간 자율합의 우선 고려"  
이번엔 플라스틱 인쇄업…박혜린 회장의 새 도전  
한국제지·계양전기 5개社 해성그룹으로 새 도약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안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한국경제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증시라인11] - 김학주의 마켓분석 <`카 쉐어링`의 진화…韓 자동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0454057?sid=101

[증시라인 11]- 김학주의 마켓분석- 출연 : 김학주 한동대학교 교수1. 우선 엔화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나?엔화는 달러의 척도이다. 즉 엔화강세는 달러 약세 기조를 상징한다. 즉 미국이 그 동안 양적완화를 통해 풀린 자금을 쉽게 거둬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다.그 근거는 첫째 중국의 경착륙(hard landing) 우려다. 역사적으로 한 경제가 부동산(고정자산 형성) 위주의 쉬운 성장을 하다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의 축을 옮기는 과도기의 저성장을 감안할 때 중국의 GDP성장률이 3년내 4%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윌버 로스나 마크 파버는 중국의 전력사용이나 운송 실적을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4%대에 들어 왔다고 주장한다.둘째 미국 내에도 문제가 있다. 미국의 공적 연금 적자가 3.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수년내 디트로이트처럼 파산하는 도시가 잇달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연금 적자가 더 커지지 않으려면 연금 지출액 중 지방 정부가 17.5%가 충당해야 하는데 지금은 7.3%에 불과하다. 특히 연금 자산 운용수익률이 7-8%로 가정하고 있는데 향후 실제 수익률은 2-3%에 불과할 전망이다. 결국 미국 연방 정부가 연금 적자를 떠 안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미국의 정부 부채는 17조 달러가 아니라 20조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이런 부담을 줄이려면 더 자산가격 버블을 만들어야 한다. 만일 이런 버블 형성 과정이 아직도 한참 남았다면 투자자들은 그것을 즐기려고 할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을 사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수익률(yield)에서의 손실을 정부의 채권 매수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충분히 상쇄). 오히려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거나 비용상승 인플레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거둬 들여야 할 때 자산가격이 붕괴될 것이다.2. 미국 정부가 자산가격 버블을 만드는 것 이외에 부실 제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중국에서 일자리를 빼앗아 오는 일이다. 미국의 US Steel의 Fairfield라는 공장은 고로(blast furnace)로는 경쟁력 상실했다. 그런데 최근 전기로 소규모 제철공장(mini mill)로 재탄생했다. 설비를 쉽게 껐다 켤 수 있고, 덜 노동집약적이므로 경쟁력 회복됐다. 미국 정부도 중국산 강관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며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중국도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고 중국 철강설비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려 했다. 그러나 최근 한계를 고백하며 미국에 읍소하는 중이다.이런 이기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국에서는 디플레, 미국에서는 인플레라는 상반된 모습이 연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계 교역 감소로 인한 비교 우위의 상실로 인해 미국 내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금리 인상 압력을 받고 결국 자산가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자산가격 버블을 만들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시장 변동 위험을 위험회피(hedge)할 필요가 있다.또는 디플레 우려를 피하기 위해 어떤 식의 인플레라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므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실물자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금이 대표적이다. 특히 미국 재정 및 달러가치에 의심이 생길수록 금의 가격 상승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3. 경기 불황일 때 금도 좋은 피신처(haven)일 수 있는데, 불황 속에서 영업이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은 없나? 예를 들면 신용평가 회사가 있다. 하청업체가 상위 조립업체나 건설업자들에게 납품할 때 자신들의 신용상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경기 불황일수록 이런 요구를 더 많이 하게 된다. 특히 과거에는 1차 벤더(vendor)정도만 신용인증을 제출했지만 불황일 경우 2차, 3차 벤더까지 체크하게 된다.한편 최근 주택경기가 다시 힘을 잃자 건설업체들이 사회간접시설(SOC) 쪽으로 몰려 입찰에 더 적극적이게 된다. 그럴수록 신용인증 건수가 증가한다.불황일수록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들 스타터업(start-up)들이 재무건전성으로 상장하기는 어려운 바, 보유 기술 인증을 통해 거래소 상장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여기서의 기회도 생기게 된다. 특히 신용평가회사는 시설투자가 필요 없어 이익의 배당성향이 높다. 배당수익률이 4-5% 정도 된다.4. 결국 정부가 공적 보험이 구멍나고, 재정이 부실해질수록 세금을 더 걷든지,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내핍 말고 공유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도 있지 않나? 가계의 비용 중 거주비, 자동차 운영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에어비앤비(Air bnb)를 통해 집을 공유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자동차는 근본적으로 공유의 개념을 도입이 가능하다. 카쉐어링(Car sharing)은 3가지로 접근 중이다.첫째 자율주행차는 구글, 애플이 주도하며 GM, Ford가 가세했다. 둘째 도심내 소형 전기차를 쉽게 렌탈하는 것이다.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경우 고속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한다. 테슬라(Tesla)가 최근 모델3(Model3)를 선 보이며 보급형 전기차 주도하고 있다. 한번 충전에 346km를 갈 수 있다면 도심내 출퇴근 및 1일 주행으로는 무리 없음. 셋째 Peer to Peer Platform이다. 최근 BMW는 자사 제품 소유주와 시간제로 이용할 젊은 고객들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 제공(mobility provider)하기 시작했다. 자동차의 부가가치가 제조업에서 금융, 리스로 옮겨 가더니 이제는 중개업(brokerage), 차량관리, 보험 등 서비스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아직 품질 개선에 머물고 있는 한국차 업계에는 상당한 위협인 상황이다.4-1) 자동차 공유(car sharing)가 한국 차 업계에는 확실히 위협적 요인인데, 그 밖에 수혜주, 피해주는 없나?전기차 중심으로 카 셰어링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관련주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의 부가가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이므로 전기차 업체가 직접 하려 할 것이다. 테슬라의 모델3(Model3)는 일본 파나소닉 원통형 전지 채택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1회 충전시 346km 주행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제휴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나 결국 파나소닉도 배신당할 것이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이미 중국업체가 한국을 추월한 상태이다.한편 전기차는 대당 구리 소모량이 가솔린 자동차의 4배 (구리는 가장 좋은 전기 전도체). 그래서 일각에서는 동 가격 반등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유/화학업종이 유가가 돌아설 때 재고평가손이 평가이익으로 바뀌고 가산금리(spread)도 여전히 좋았던 점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동은 2017년까지 설비공급이 계속 늘고,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전기차 보급에 따른 수요 증가로는 회복을 설명할 수 없다. (2030년까지 전기차로 인해 증가할 구리 수요가 2014년 구리 소모량의 5% 정도) 자동차 렌탈을 하던 업체들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 심화에 노출될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증시라인 11 , 평일 오전 11시 LIVEⓒ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TV.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윤아, 中 인기 돌풍…'무신조자룡' 연이은 대박 행진  
김유정, '구르미 그린 달빛' 전격 캐스팅…박보검과 싱그러운 여름 로맨스 펼친다  
'인천상륙작전' 길금성, 그는 누구인가?  
태양의 후예 마지막회 시청률 40% 넘었다…결말 '해피엔딩'  
고지용, 젝스키스 무대 혼자 양복입고 올라 "아기아빠 됐다" 울먹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안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한국경제TV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블리처스가 테슬라 CEO?..유튜브 채널 해킹 '황당 분노' [공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9/0004904019?sid=106

[OSEN=박준형 기자]그룹 블리처스가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다. 2023.05.09 / soul1014@osen.co.kr[OSEN=박소영 기자] 그룹 블리처스(BLITZERS, 진화, 고유, 주한, 샤, 크리스, 루탄, 우주)의 유튜브 채널이 해킹을 당했다.지난 6일 블리처스 공식 유튜브 채널은 해킹으로 인해 채널명이 테슬라로 변경됐으며, 모든 영상이 삭제되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출연하는 영상들이 업로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소속사 우조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블리처스 유튜브 계정이 해킹돼 아티스트와 관계없는 콘텐츠가 업로드 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해킹과 관련 문의 및 채널 복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앞서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각종 기업과 방송사,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채널들이 의문의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며 논란이 일었다.현재 블리처스 공식 유튜브 채널은 해킹 시 이루어진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해 비활성화된 상태로, 소속사 우조엔터테인먼트는 빠른 복구를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지난 2021년 첫 번째 미니 앨범 '체크-인(CHECK-IN)'으로 데뷔한 블리처스는 화려한 비주얼과 탄탄한 가창력, 눈을 뗄 수 없는 파워풀한 퍼포먼스의 완벽한 삼박자를 자랑하며 전 세계 K팝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특히 블리처스는 지난해 데뷔 첫 미국 투어와 유럽 투어를 비롯해 앨범, OST, 예능, 웹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것에 이어 지난 4월 발매한 두 번째 싱글 '마카레나'로 전 세계에 뜨거운 댄스 신드롬을 불러오며 '글로벌 대세 그룹' 입지를 더욱 확고히 굳혔다.현재 블리처스는 지난달 21일 데뷔 첫 단독 일본 투어 '스타트 업(START UP)'을 개최하고 글로벌 팬들과 만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는 FC 라이브 도쿄(FC LIVE TOKYO)에서, 9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FC 라이브 오사카(FC LIVE OSAKA)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9월 2일에는 도쿄 닛쇼홀에서 첫 팬콘서트 '서머 스토리(SUMMER STORY)'도 개최한다. /comet568@osen.co.kr[사진] OSEN DB

[올댓차이나] "테슬라, 상하이 공장설립 계약 체결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7305175?sid=101

※[편집자 주]= 올댓차이나는 중국 직접투자 시대를 맞아 후강통 100대 기업을 포함해 유력 중국 기업 및 신산업, 중국 관련 콘텐츠를 집중 발굴하는 코너입니다. "외신, 21일 테슬라 90억 달러 투자해 공장 건설 양해각서 체결 보도""상하이 부동산 개발업체 푸동금교, 22일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류은혁 인턴기자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푸동금교(浦东金桥)와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Tesla Motors) 모두 상하이에 대규모 테슬라 공장 설립 계약 체결을 부인했다. 22일 중국 현지 매체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푸동금교는 테슬라와 양해각서를 포함해 생산시설에 관한 어떠한 형식의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푸동금교는 상하이시 소유하고 있는 금교그룹(金桥集团) 산하의 부동산 개발업체다. 앞서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난 21일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푸동(浦東) 경제특구에 9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금교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푸동금교는 전날 오전 주가가 10% 가까이 치솟아 오후에는 거래가 중지됐다. 이날은 거래가 재개됐으나 주가는 5%가량 하락세다. 상하이 경제특구 관리위원회도 테슬라 공장 설립과 관련해 들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테슬라 중국지사도 중국 생산기지 설립과 관련해 본사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어느 지역에 세울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부터 중국 내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여러 번 표명했다. 또한 올해 초 홍콩에서 열린 창업 포럼 '스타트 미 업(Start me up)'에 참석해 올해 안으로 중국 내 공장부지와 협력자를 찾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25%에 이르는 수입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중국인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량 구매 시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게 돼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이번 상하이 공장 건설 보도에 앞서 테슬라가 중국 쑤저우(苏州)나 광저우(广州) 등에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돈 적이 있다. 당시 테슬라 중국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mint@newsis.comehryu@newsis.com 뉴시스 뉴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영  
  
  
  
  
기자 프로필  
  
  
  
  
  
  
  
  
  
  
  
  
  
  
  
  
  
  
  
  
이진영 기자  
  
  
  
  
  
  
구독  
  
  
구독중  
  
  
  
  
  
구독자 0  
  
  
  
  
응원수  
0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재난 예측 AI 경진대회 개최  
  
  
'디지털 집현전', 연말부터 시범서비스…"국가지식정보 한곳서 검색 OK"  
  
  
  
  
  
  
  
뉴시스의 구독 많은 기자를 구독해보세요!  
  
닫기  
  
  
  
  
  
  
  
  
Copyright ⓒ 뉴시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구독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중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러가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 간 남편 실종신고 내 보험금 15억 받은 ´무서운 부인´  
술이 원수…식당 팁으로 120여만원 건넨 손님  
고교 급식에 개구리 시체가…학생들 경악  
靑 "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공약 지켰다"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국회 발의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안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자동 기사배열 영역에 추천 요소로 활용됩니다.  
  
레이어 닫기  
  
  
   
  
  
뉴시스 언론사홈 바로가기  
  
  
   
  
  
  
  
  
언론사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  
  
  
  
  
  
  
  
  
  
기자 구독 후 기사보기  
  
  
  
구독 없이 계속 보기